



2017년 7월 30일(제834호) 연중 제1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기진 것을 모두 치분하여 그것을 싣다”

연중 제17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게 되는데, 이 비유들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떠한 위치(포지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곧 하느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게끔 이끌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독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곧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하느님의 질문에 오늘의 우리는 무엇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솔로몬처럼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겸손된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주는 진리이자,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청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선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김진수(요셉) 신부
탈리대(해병9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1열왕 3,5-6 7.7-12
회 답 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8,28-3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께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마태 13,44-52<또는 13,44-46>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진리를 살다

이 잔치가 다른 모든 잔치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치실 몸, 당신이 흘리실 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은 이 식사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행하신 것이고 또 그 희생은 이 성찬에 현존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말씀으로 후에 이와 같은 희생을 항상 재현할 것을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유언을 유대인들의 잔치와 관련시키셨고 또 그 잔치 중에 신약의 기념제를 위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것은 간단한 시작기도 끝에 주신 한 조각의 빵, 하느님을 찬양하는 보다 긴 기도 끝에 주신 한 모금의 포도주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집전자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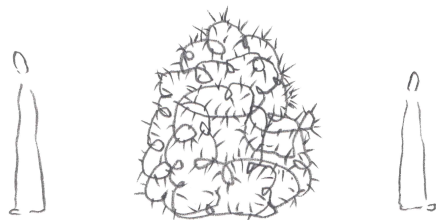
상진진례

오늘날 예물 준비 때 빵과 포도주를 건네고 바쳐진 빵과 포도주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성체의 빵을 쪼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우리가 미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성체 사건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물 준비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대축일에 예물에 향을 피우는 것은 향연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예물을 하느님께 바쳐 하느님께서 그 예물을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느님 앞에 바치는 참 예물은 빵과 포도주, 우리가 내는 금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인간을 위해서 바치는 ‘산 제물’(로마 12,1)로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상황이 아닌 마음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겠지요.

포기하기엔
내 스스로
창피하지 않나?

조금만
마음을 내봐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자나요.

상화이야기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안나 성인과 세례자 요한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1499-1500년 작
나무 위 유화 168 X 112 cm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파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빈치가 그린 이 작품은,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한 연구에서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작품이다. 얼핏 보기엔 인물들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색감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빈치 특유의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들이 가득하다.

일단 안나 성인(성모님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계신 성모님이라는 포즈는 미술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상으로, 안나 성인이 성모님보다 크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모성애에 대한 헌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배경은 마치 동양화를 연상시키듯 흑백의 암석이 가득한 돌산이고, 이들 인물이 앉아 있는 곳도 돌산의 절벽 같은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을 바라보는 안나 성인의 눈빛, 그리고 어린양(다가올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을 암시)과 장난을 치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부드럽게 안아 올리시는 성모님의 몸짓과 눈빛, 그리고 이를 미소를 띠고 바라보시는 아기 예수님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는, 모든 수수께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대의 우리도 감동을 주는 큰 힘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강철 장진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Knight of Columbus 모임
때·곳: 7월 25일(화)-8월 2일(수), 미국 뉴욕

◆ 제16회 교구 청소년대회

때: 7월 31일(월)-8월 4일(금)
곳: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